

##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현숙<sup>1</sup>, 김승희<sup>2\*</sup>

<sup>1</sup>원광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sup>2</sup>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과

### Factors Affecting Job Find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Hyun-Suk Lee<sup>1</sup>, Seung-Hee Kim<sup>2\*</sup>

<sup>1</sup>*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Graduate of School, Wonkw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Vision University*

####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determine the grade and factors of the effects that influence the stress related to job finding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The data was collected for 4days from June 7, 2011. Among a total of 360 cases of the questionnaires, only 324 cases were used. To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t-test, ANOVA, correlation and regression using PASW statistics 18.0.

From the analyses, it was found that school environment and study-related stress were some of major causes for stress in job finding.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areas of job finding-related stress by gender, age, type of school, school grade, whether or not the graduating class and satisfaction with the major selecte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sub-areas of job finding-related stress such as academic achievements, characters, and school and family environments and whether in graduating class of collegian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major they chose turned out to exercis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upon the stress of the students majoring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Job Finding-related Stress, Study-related Stress, Character-related Stress, School Environment-related Stress, Family Environment-related Stres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들은 매우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1].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 불가피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요인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또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

스트레스는 우리 일생의 시기별 발달과정과 특성에 따라 양상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학생의 경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하는 시기이며[3], 대학생활 내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대학문화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들은 사회환경의 변화, 폭넓은 인간관계, 진로 선택, 자아실현, 장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4].

특히 대학생인 25세까지는 진로발달단계에서 탐색단계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각 개인이 더 좋은 정보를 구하고 직접적 대안을 선택하고 직업을 결정하며 일을 하기 시작하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진로선택과 결정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졸업 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가 파괴되고 위기, 긴장감 또는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취업스트레스라 정의하고 있다[5].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 경제 불황과 세계경제의 둔화 등으로 기업투자가 위축되면서 신규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시기와 본격적인 구직활동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취업문제는 가장 큰 스트레스로 연결되어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6].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해림[7]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영역에 있어서 진로문제, 학사문제, 적응문제의 순서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봉민[8]은 대학생활에서 가치관 요인보다 취업 및 진로가 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임을 밝힌바 있다. 한정신[9]은 '한국대학생 문제 진단검사'를 개발하여 전국 2,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학업, 진로 및 장래문제, 가치관, 성격, 경제, 가족관계, 신체 및 건강 등의 순서를 보여 진로 및 장래문제가 중요함을 제시하였고, 강부명[10]의 연구 결과 역시 대학생들에게 진로와 취업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적개심,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이상과 고통의 증가를 가져오고[11], 정신분열, 우울장애, 신경증과 같은 심리학적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며[12], 신체적으로는 두통, 위장장애, 수면장애, 무기력 등을 발생시키며, 고혈압[13], 관상동맥질환[14]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상황과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나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어떤 문제에서 비롯되는지, 혹은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들에게 어떤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루어왔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련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라남도과 전라북도에 소재한 보건행정 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 관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취업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파악한다.

둘째, 조사대상의 개인적 특성, 학교특성, 전공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넷째, 조사대상의 특성 중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은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보건행정학과, 의무행정학과, 보건관리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한다. 본 조사는 전라남도과 전라북도의 2년제 전문대학, 3년제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각 1개교의 보건행정전공 대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 중 이용가능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사전에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의 대학을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설

문지 회수는 조사실시 후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1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 360부 중 343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총 324부가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 2. 변수선정 및 측정방법

### 1)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특성

본 연구는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개인적 특성, 학교특성, 전공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은 성별, 나이, 종교유무의 3가지 변수로 구분하였고, 학교특성은 학교형태(1:2년 전문대학, 2:3년 전문대학, 3:4년 대학교), 학년, 졸업반여부의 3가지 변수로 구분하였다. 또한 전공특성은 학과선택이유(1:적성과 흥미, 2:취업전망, 3:부모/주위권유, 4:성적에 맞게, 5:기타), 본인선택여부, 선택시기(1:고교재학중, 2:입학직전), 전공선택만족도(5점 Likert척도)의 4가지 변수로 구분하여 이들 중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취업스트레스

보건행정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황성원[5]이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rnell Medical Index : CMI)'을 참고하여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검사를 사용하였다. 총 72문항으로 하위요인으로는 학업스트레스 요인(13문항), 성격스트레스요인(30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1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3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1점, '보통이다'는 2점, '그렇다'는 3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는 이미경[1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측정도구로 사용된 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학업스트레스요인 Cronbach's  $\alpha=.733$ (13문항), 성격스트레스요인 Cronbach's  $\alpha=.915$ (30문항),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 Cronbach's  $\alpha=.805$ (16문항),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 Cronbach's  $\alpha=.862$ (13문항)였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PASW Statistic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된 변수는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학교특성, 전공특성을 파악하였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하위요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와 4가지 하위요인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개인적 특성, 학교특성, 전공특성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의 특성과 취업스트레스 현황

#### 1) 조사대상의 특성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특성은 개인적 특성, 학

교특성, 전공특성으로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유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성별은 여자가 244명(75.3%)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만 19세 이하가 163명(50.3%)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있는 경우가 165명(50.9%)으로 없는 경우보다 조금 많았다.

학교특성은 학교형태, 학년, 졸업반여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학교는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135명(41.7%)로 가장 많았고, 2년제 전문대학 재학생이 99명(30.6%), 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이 90명(27.8%) 순으로 많았다. 학년은 2학년이 127명(39.2%), 1학년 121명(37.3%), 3학년 60명(18.5%), 4학년 16명(4.9%)으로 주로 1, 2학년이 많았고, 이 중 졸업반에 해당하는 학생은 84명(25.9%)이었다.

전공특성은 학과선택이유, 학과선택의 본인선택 여부, 선택시기, 전공선택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학과선택이유는 취업전망에 따른 선택이 114명(35.2%)로 가장 많았고, 성적에 맞게 지원한 경우가 70명(21.6%), 부모 및 주위의 권유가 66명(20.4%), 적성과 흥미에 따른 선택이 61명(18.8%)로 나타났다. 학과선택을 본인이 결정한 경우는 106명(32.7%)였으며, 218명(67.3%)의 학생이 타인에 의해 학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인 경우, 부모 및 가족에 의한 선택이 148명(67.9%)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가 31명(14.2%), 친구 25명(11.5%), 선배 3명(1.4%) 순으로 많았다. 기타는 11명(5.0%)으로 대학입시설명회 및 대학교수에 의한 선택, 타 대학의 불합격에 의한 선택 등이 포함되었다. 선택시기는 고교재학 중이 205명(63.3%)로 입학직전에 선택하는 경우 119명(36.7%)보다 많았다.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155명(47.8%)로 가장 많았고, 만족 116명(35.8%), 불만족 29명(9.0%), 매우 만족 19명(5.9%), 매우 불만족 5명(1.5%) 순으로 많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80	24.7	
	여	244	75.3	
개인적 특성	나이			
	19세이하	163	50.3	
	20세	63	19.4	
	21세	32	9.9	
	22세	31	9.6	
	23세이상	35	10.8	
종교유무	있음	165	50.9	
	없음	159	49.1	
학교형태	2년제전문대학	99	30.6	
	3년제전문대학	90	27.8	
	4년제대학교	135	41.7	
	학교 특성			
학년	1학년	121	37.3	
	2학년	127	39.2	
	3학년	60	18.5	
	4학년	16	4.9	
	졸업반여부	예	84	25.9
아니오		240	74.1	
학과선택 이유	적성과 흥미	61	18.8	
	취업전망	114	35.2	
	부모/주위권유	66	20.4	
	성적에 맞게	70	21.6	
	기타	13	4.0	
본인선택 여부	예	106	32.7	
	아니오	218	67.3	
	전공 특성	부모 및 가족	148	46.1
		고등학교 교사	31	9.7
		선배	3	0.9
친구		25	7.8	
기타	11	3.4		
선택시기	고교재학중	205	63.3	
	입학직전	119	36.7	
전공선택 만족	매우불만족	5	1.5	
	불만족	29	9.0	
	보통	155	47.8	
	만족	116	35.8	
	매우만족	19	5.9	
합계		324	100.0	

## 2) 조사대상의 취업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의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1.65±0.31이었다.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 결과,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은 평균 1.76±0.38, 학업스트레스요인은 평균 1.72±0.34,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은 평균 1.62±0.42, 성격스트레스요인은 평균 1.57±0.35 순으로 높았다. 즉 취업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과 학업스트레스요인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 현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업스트레스	1.72	0.34	1.00	2.77
성격스트레스	1.57	0.35	1.00	2.60
학교환경스트레스	1.76	0.38	1.00	3.00
가족환경스트레스	1.62	0.42	1.00	3.00
취업스트레스	1.65	0.31	1.00	2.51

##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의 비교

### 1) 개인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비교

개인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가 평균 1.79±0.36으로 남자의 평균 1.65±0.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2.849^{**}$ ), 연령에 따라서는 성격스트레스요인,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격스트레스요인은 만 22세가 평균 1.68±0.40로 가장 높았고,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 또한 만 22세가 평균 1.83±0.41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은 만 21세가 평균 1.69±0.49로 가장 높았다.

<표 3> 개인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t=1.125		t=1.314		t=2.849**		t=1.551	
여	1.74	0.35	1.59	0.35	1.79	0.36	1.64	0.42
남	1.69	0.32	1.53	0.36	1.65	0.42	1.56	0.41
연령	F=2.178		F=2.527*		F=2.548*		F=2.542*	
19세이하	1.77	0.33	1.58	0.34	1.79	0.37	1.68	0.44
20세	1.63	0.35	1.47	0.33	1.66	0.36	1.53	0.36
21세	1.75	0.36	1.66	0.37	1.81	0.40	1.69	0.49
22세	1.73	0.35	1.68	0.40	1.83	0.41	1.57	0.32
23세이상	1.66	0.34	1.55	0.36	1.66	0.39	1.52	0.35
종교유무	t=-.282		t=-.911		t=-.901		t=-.644	
있음	1.72	0.35	1.55	0.34	1.74	0.39	1.61	0.41
없음	1.73	0.33	1.59	0.36	1.78	0.38	1.64	0.43
전체	1.72	0.34	1.57	0.35	1.76	0.38	1.62	0.42

\* p<.05, \*\* p<.01

## 2) 학교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학교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교형태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학업스트레스요인(F=3.643\*), 성격스트레스요인(F=3.98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스트레스요인은 2년제 전문대학 재학생이 평균 1.80±0.36으로 가장 높았으며, 3년제 전문대학이 평균 1.67±0.32로 가장 낮았다. 성격스트레스요인 또한 2년제 전문대학 재학생이 평균 1.65±0.36으로 가장 높았고, 3년제 전문대학이 평균 1.51±0.30으로 가장 낮았다.

<표 4> 학교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형태	F=3.643*		F=3.982*		F=.287		F=2.410	
2년제전문대학	1.80	0.36	1.65	0.36	1.76	0.40	1.70	0.46
3년제전문대학	1.67	0.32	1.51	0.30	1.78	0.39	1.61	0.40
4년제대학교	1.70	0.33	1.55	0.36	1.74	0.37	1.58	0.39
학년	F=2.950*		F=4.799**		F=1.371		F=1.280	
1학년	1.75	0.31	1.54	0.33	1.78	0.39	1.65	0.45
2학년	1.71	0.36	1.57	0.36	1.74	0.39	1.64	0.42
3학년	1.65	0.34	1.54	0.35	1.72	0.34	1.53	0.38
4학년	1.92	0.34	1.88	0.36	1.92	0.34	1.67	0.27
졸업반여부	t=3.043**		t=4.391***		t=1.328		t=1.759	
예	1.82	0.38	1.71	0.37	1.82	0.37	1.69	0.43
아니오	1.69	0.32	1.52	0.33	1.74	0.39	1.60	0.41
합계	1.72	0.34	1.57	0.35	1.76	0.38	1.62	0.42

\* p<.05, \*\* p<.01, \*\*\* p<.001

학년에 따라서는 학업스트레스요인(F=2.950\*)과 성격스트레스요인(F=4.79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4학년의 학업스트레스요인 평균이 1.92±0.34로 가장 높았고, 성격스트레스요인도 평균 1.88±0.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졸업반 여부에 따라서는 학업스트레스요인과 성격스트레스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스트레스요인은 졸업반이 평균 1.82±0.38로 졸업반이 아닌 경우보다 높았으며, 성격스트레스요인도 졸업반이 평균 1.71±0.37로 졸업반이 아닌 경우보다 더 높았다.

### 3) 전공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전공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공선택에 대

한 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인 학업스트레스요인(F=17.100\*\*\*), 성격스트레스요인(F=5.249\*\*\*),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F=4.199\*\*),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F=2.88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공선택에 대해 불만족할 때 학업스트레스요인이 평균 2.11±0.33,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이 평균 1.79±0.48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불만족할 때 성격스트레스요인이 평균 1.81±0.39,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이 평균 2.08±0.14로 가장 높았다. 즉 전공선택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할 때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표 5> 전공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선택이유	F=1.605		F=.633		F=.992		F=.462	
적성과 흥미	1.69	0.30	1.59	0.40	1.78	0.33	1.57	0.43
취업전망	1.68	0.35	1.53	0.34	1.71	0.39	1.61	0.42
부모/주위권유	1.78	0.34	1.61	0.30	1.75	0.39	1.66	0.43
성적에 맞게	1.78	0.36	1.57	0.38	1.81	0.42	1.65	0.42
기타	1.69	0.24	1.63	0.31	1.85	0.26	1.61	0.24
본인선택여부	t=-.487		t=-.738		t=-.816		t=-1.526	
예	1.71	0.33	1.55	0.35	1.73	0.34	1.57	0.36
아니오	1.73	0.35	1.58	0.35	1.77	0.40	1.65	0.44
선택시기	t=-1.344		t=-.595		t=-1.038		t=-.336	
입학직전	1.69	0.36	1.56	0.37	1.73	0.40	1.61	0.44
고3이전	1.74	0.33	1.58	0.34	1.78	0.37	1.63	0.40
전공선택만족도	F=17.100***		F=5.249***		F=4.199**		F=2.888*	
매우불만족	1.92	0.20	1.81	0.39	2.08	0.14	1.60	0.35
불만족	2.11	0.33	1.77	0.39	1.91	0.42	1.79	0.48
보통	1.75	0.32	1.58	0.32	1.79	0.35	1.66	0.38
만족	1.62	0.29	1.53	0.35	1.70	0.40	1.55	0.43
매우만족	1.51	0.38	1.36	0.40	1.58	0.35	1.49	0.40
합계	1.72	0.34	1.57	0.35	1.76	0.38	1.62	0.42

\* p<.05, \*\* p<.01, \*\*\* p<.001

<표 6>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

	학업 스트레스	성격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0.639***			
학교환경스트레스	0.502***	0.681***		
가족환경스트레스	0.463***	0.654***	0.581***	
취업스트레스	0.743***	0.936***	0.828***	0.795***

\*\*\* p<.001

### 3.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간의 상관관계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인 학업스트레스요인, 성격스트레스요인,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취업스트레스는 모든 하위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성격스트레스요인( $r=.936^{***}$ )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 $r=.828^{***}$ ),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 $r=.795^{***}$ ), 학업스트레스요인( $r=.743^{***}$ ) 순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표 7>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beta$	B	$\beta$	B	$\beta$
(상수)	1.586***		1.619***		2.084***	
성별	0.076	0.106	0.051	0.070	0.046	0.064
나이	-0.001	-0.008	-0.008	-0.054	0.000	0.003
종교유무	-0.029	-0.046	-0.019	-0.031	-0.019	-0.031
학교형태						
2년제전문대학(준거)						
3년제전문대학			-0.046	-0.065	-0.078	-0.112
4년제대학교			-0.012	-0.019	-0.031	-0.049
학년			-0.005	-0.015	-0.011	-0.031
졸업반여부			0.133*	0.187	0.118*	0.165
선택이유						
적성과 흥미(준거)						
취업전망					-0.069	-0.106
부모/주위권유					-0.042	-0.054
성적에 맞게					-0.018	-0.023
기타					-0.047	-0.030
본인선택여부					-0.064	-0.097
선택시기					-0.048	-0.074
전공선택만족도					-0.119***	-0.299
R <sup>2</sup>	.014		.052		.149	
Adj. R <sup>2</sup>	.005		.031		.110	
F	1.536		2.475*		3.851***	

1) 종속변수 : 취업스트레스

2) 더미변수 : 성별(여자=1, 남자=0); 종교(있음=1, 없음=0); 학교형태(해당=1, 미해당=0); 졸업반여부(졸업반=1, 아님=0); 선택이유(해당=1, 미해당=0); 본인선택여부(본인선택=1, 타인선택=0)

\* p<.05, \*\* p<.01, \*\*\* p<.001



#### 4.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 학교 특성, 전공특성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시 성별, 종교, 학교형태, 졸업반여부, 선택이유, 본인선택여부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먼저 개인적 특성을 투입한 모형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없었으며, 모형의 설명력 또한 매우 낮았다. 개인적 특성과 학교특성을 동시에 투입한 모형 2에서는 졸업반여부( $B=.13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반인 경우 일반 재학생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최종적 모형으로 개인적 특성, 학교특성, 전공특성을 모두 투입한 모형 3에서는 졸업반여부( $B=.118^*$ )와 더불어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 $B=-.119^{***}$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반인 경우,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의 취업스트레스가 더 높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Adj.  $R^2=11.0\%$ ).

###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정도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효과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과 전라북도의 보건행정전공 대학생 360명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다양한 요인이 취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취업스트레스에 관

련이 있는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파악한 결과, 취업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과 학업스트레스요인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동일 측정도구를 사용했던 이미경[15]의 연구에서도 학업스트레스, 학교환경스트레스, 가족환경스트레스, 성격스트레스 순으로 높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한국대학생 문제 진단검사’를 개발하여 전국 2,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정신[9]의 결과에서도 학업, 진로 및 장애문제, 가치관, 성격, 경제, 가족관계, 신체 및 건강 등의 순서를 보여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부분이 대학생들의 주요 취업스트레스 요인으로 이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기타 모든 하위영역에 있어서도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황성원[5]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학교환경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김혜정[16], 김나영[1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남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20여년 전에 실시된 김영미[18]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성의 진로 의식이 약하고 취업에 대한 압박감을 적게 받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 여성의 사회활동과 생활력에 대한 적극적 의식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환경과 학업, 성격스트레스요인이 높았지만,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은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종교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하위영역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 높은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냈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외적, 또는

내적 욕구가 개인의 적응자원을 능가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평온상태를 위협 또는 위태롭게 하는 환경적 자극조건으로[7], 이러한 스트레스요인을 받아들이는 종교적 믿음의 유무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취업스트레스는 여러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하위영역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에 각 요인별로 대학생들에게 적절하고 세심한 취업스트레스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요인과 성격스트레스요인은 2년제 전문대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높았고, 학교환경과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은 3년제 전문대학생이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3년제와 4년제보다 짧은 시간 내에 학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더불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인 경우 학업스트레스요인과 성격스트레스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과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 또한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황성원[5], 강부명[10], 김혜정[16]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다고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했던 반면, 이미경[15]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취업스트레스가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또한 졸업반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업스트레스요인과 성격스트레스요인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과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은 졸업반이 아닌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졸업반여부는 회귀분석에서도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4학년과 졸

업반의 경우 학업스트레스요인과 성격스트레스요인이 높은 것은 취업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생활을 할 때 대인관계나 조직생활에 대한 부담감을 타 학년에 비해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이유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현재의 고실업 시대에 대한 대학생들의 불안감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전공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비교한 결과는 전공선택에 대한 만족도만이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선택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할 때 취업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회귀분석에서도 취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황성원[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 전공선택에 만족할 경우 전공과 연결되는 직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미래에 대한 모호함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취업스트레스 하위영역인 학업스트레스요인, 성격스트레스요인,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모든 하위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성격스트레스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학교환경스트레스요인, 가족환경스트레스요인, 학업스트레스요인 순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성격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신현균과 장재운[19]은 성격이 외향적인 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나희진[20]은 대인관계에 대해 유능감을 보인 집단들이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뛰어나다고 밝힌바 있다. 즉, 성격이 적극적이고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들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먼저 취업에 대한 자심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전공분야 저명인사 혹은 선배들의 초청특강과 만남의 기회를 부여하여 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하고,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성특유의 장점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학교·학과의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졸업반인 경우 일반재학생에 비해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을 보였기에 저학년부터 취업에 관한 정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준비하여,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취득과 직장체험 등을 통해 취업환경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학과 중심의 취업지도와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 및 학과에 대한 만족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취업에 대한 책임이 절대적으로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형식적인 상담과 지원보다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사업측면에서의 전문적인 접근과 지원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보건행정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취업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한 3개 대학만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취업스트레스 관련요인 또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선정하였기에 보다 다양한 영향요인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폭넓은 연구대상을 통한 검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다각적인 요인을 찾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이춘희(2007),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
2. 박재욱(1994),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지각, 안동대학교 학생지도연구소, Vol.14(1);3-23.
3. 이인정, 최해경(200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 pp.112-120.
4.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Vol.10(2);215-237.
5. 황성원(1998),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0-37.
6. 박미진(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Vol.10(1);417-435.
7. 최해림(1986),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31-34.
8. 김봉민(1991),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 및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분석, 순천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Vol.10;1-21.
9. 한정신(1991), 한국 대학생 문제 진단 검사 개발연구, 학생생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 지도연구소, Vol.17(1);1-53.
10. 강부명(2003), 대학생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5-39.
11. Hanish A. K.(1999), Job loss and unemployment research from 1994 to 1998, A review and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55;188-220.
12. Brown G.(1968), Serises and life changes and the onset of schizophrenia, Journal of Health Social Behavior, Vol.9;203-214.
13. Matthews K. A.(1987), Stressful work condition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among blue collar

- factory worker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126;280-291.
14. Jenkins C. D.(1971), Psychologic and social precursors of coronary heart diseas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284;244-255.
  15. 이미경(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9-38.
  16. 김혜정(2004),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신체적 증상과의 관련성,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9.
  17. 김나영(2010), 대학생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8-39.
  18. 김영미(1991),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성격 특성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9-52.
  19. 신현균, 장재윤(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22(4);815-827.
  20. 나희진(2005),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5-41.

접수일자 2011년 7월 8일

심사일자 2011년 9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9월 9일